안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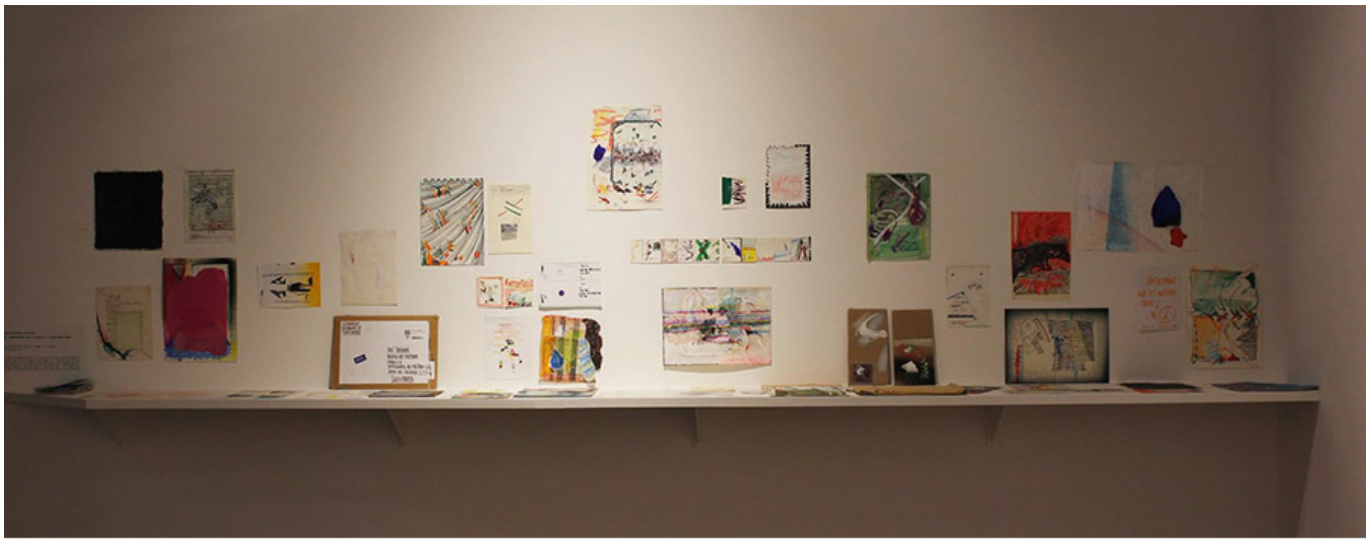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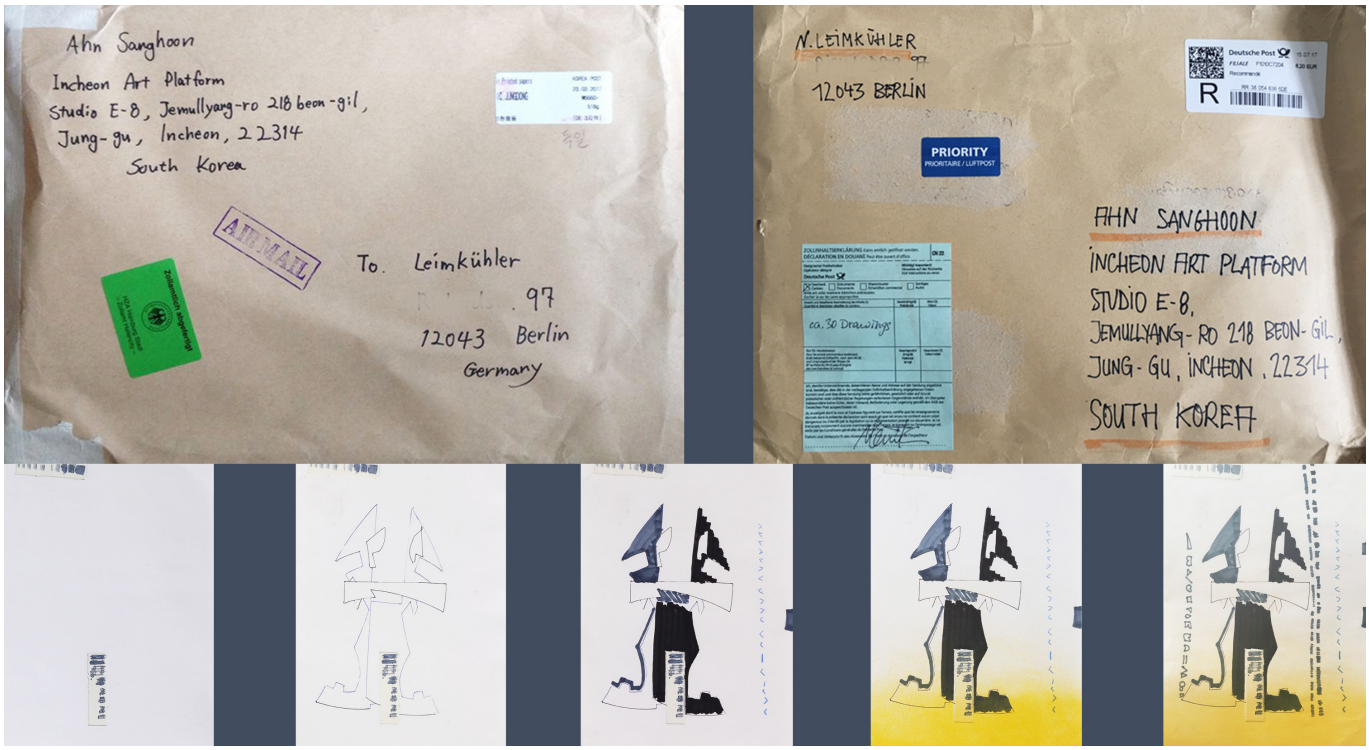
올 한 해,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해 활동할 2018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새로운 주인공들이 뽑혔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연구와 창작활동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창작지원 프로그램과 발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한 달에 두 번, 인천문화통신 3.0을 통해 2018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작가를 소개합니다.

작가 안상훈은 중앙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독일 쿤스트아카데미 뮌스터(Kunstakademie Muenster)에서 순수예술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뵐커(Voelker) 교수로부터 마이스터슐러(Meisterschueler)를 사사받았다. 10년의 시간 동안 머물렀던 독일을 떠나, 작년에 귀국하여 한국의 미술 현장을 경험하였다. 그 첫 여정은 인천아트플랫폼이었다. 작가는 작년 여름에 캔버스 대신 전시장 벽과 비닐 위에 회화를 시도하며 예술의 관습(좋고 나쁨)에 질문을 던져보았다.

개인전 [GOOD: PAINTING] 전경_페인트 보강비닐 위 혼합재료_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_2017

작년 봄부터 겨울까진 인천의 작업실과 독일 베를린을 왕래하는 우편드로잉을 통해 서서히 완성되는 회화의 시간과 장소의 확장에 대해 실험하였고, 가을에는 작가 개인의 작업실을 한명의 관객을 위한 전시장(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실험하였다. 그리고 이번 5월 12일까진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야외 윈도우 갤러리를 작업실로 삼아, 매일 그림을 채워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작가는 자신에게 회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지며 다각적으로 실험해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정해진 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가벼움과 진중함 사이에서 긴장감을 유지하고자 하며, 항시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머물지 않고 흐르기 위해 작업한다.





롤링 드로잉_설치전경, 과정_2017

Ahn Sanghoon
Incheon Art Platform
Studio E-8, Jemullyang-ro 218 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outh Korea
AIR MAIL
To. Leimkühler
[redacted] .97
12043 Berlin
Germany
N. LEIMKÜHLER
[redacted] 97
12043 BERLIN
PRIORITY
PRIORITAIRE / LUFTPOST
Deutsche Post
R
ca. 30 Drawings
AHN SANGHOON
INCHEON ART PLATFORM
STUDIO E-8,
JEMULLYANG-RO 218 BEON-GIL,
JUNG-GU, INCHEON, 22314
SOUTH KOREA

롤링 드로잉_설치전경, 과정_2017

현재 전시 소개

안상훈 작가는 상시 개방된 윈도우 갤러리를 작업실화 하여 22일간 벽면에 자연스럽게 그림을 채우는 매일매일 프로젝트 <오픈 윈도우 아뜰리에: from the moment you walk through the door until the moment you leave>를 진행하고 있다. 공간 폭이 채 1미터도 안 되는 윈도우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본 프로젝트는, 이상적인 쇼윈도에 진열된 상품처럼 작가의 활동과 작품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때 오가는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작가의 공개된(노출된) 작업실을 만나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그것은 예술(인)의 과정(시간)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 위주의 전시공간과는 다른, 매일 변화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새로

운 장소를 발견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제목처럼 윈도우 아뜰리에는 작가가 문을 열고 들어가 오롯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시간이며, 또한 창을 통해 그 공간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간이 머무르다가 지나가는 곳으로 아마도 누군가 사라질 때까지 존재하는 상대적이고 유연한 과시(過時) 공간이 되겠다.
프로젝트는 오는 5월 12일까지 윈도우 갤러리에서 매일매일 진행된다.

'OPEN WINDOW ATELIER'
from the moment you walk through the DOOR
the moment

윈도우 갤러리 매일매일 프로젝트
<오픈 윈도우 아뜰리에: from the moment you walk through the door until the moment you lreave>
2018.4.21-5.12 @윈도우 갤러리

Q&A

Q. 창작의 관심사와 내용, 제작 과정에 대하여

A. 나는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인식하고, 다시 그리는 행위의 ‘과정(process)’, 무형의 이미지에 대한 시지각적 기억과 경험이 개입된 작가의 ’결정(choice)‘에 주목하려 한다. 지금까지 회화의 본질에 대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회화성에 대해 개인적인 탐구를 해오고 있는 것 같다.
작업의 영감은 딱히 없다. ‘어떤’ 혹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 우선 그림을 저지르고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며 진행한다. 그러다 화면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것들이 발생하고/발견되고, 여러 회화적인 요소들이 헤매고 충돌하다가 나를 놀라게 하는 나름의 조화를 찾는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과정은 아마도 ‘기존과 다름’, ‘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에 대한 욕구’를 시각적 보편성과 새로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보고 싶기 때문인 것 같다.

직경 18센티미터_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_145×112cm_2017

우호적 경쟁_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_145×112cm_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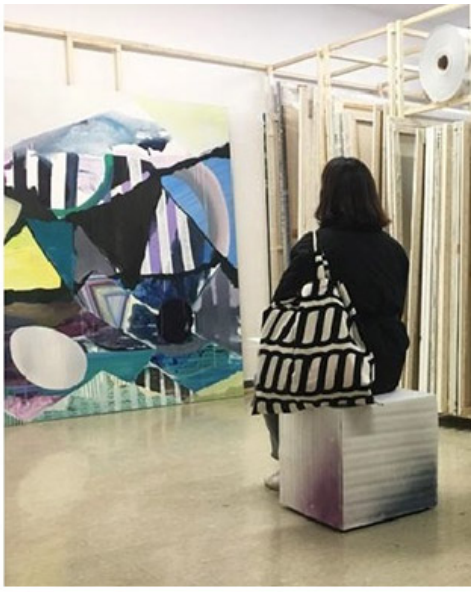
Q. 대표적인 작업 소개

A.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는데 그런데도 머릿속에 남는 작업이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업이 바뀌기도 한다. 완성이라 생각했던 작업을 다시 지우고 덧그리기도 하고, 때론 중간 과정이 더 흥미로웠던 작업도 있다. 따라서 대표 작업이 따로 있기보단, 지난 작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대표작이다. 아니면 대표작이 하나도 없거나.

The Atlantis Crown, Emotional resonance, Casual, Climate change_종이에 혼합재료_each 42×32cm_2016

Q. 작업의 영감, 계기, 에피소드 등

A. 작업의 영감은 딱히 없다. 우선 그림을 저지르고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며 진행한다. 언젠가 한 그



림의 진행 과정 중 오랫동안 정체 상태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맘에 들었던 부분을 지워버리니 답이 보였다. 이런 작가의 결정이 내게는 다른 단계를 위한 또 다른 시작점이 되는 것 같다. 이 과정이 즐겁기도 하고….

Q. 예술,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에 대하여

A. 나만 만족하는 회화를 해본 적도 있고, 관객과 외부의 시선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작업에 임해본 적도 있다. 결국, 이 둘의 조화가 중요한 것 같다. 다양한 예술의 역할 속에 설명적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런데도 어떤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나만의 회화의 역할을 인식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당신을 위한 미술관_2017

Q. 앞으로의 작가로서의 작업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A.

길게 호흡하며 작업하려고 한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지난 시간이 나만의 회화의 길로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이다.

항시 머물지 않고 흐르기 위해

작업할 것이고,

그래서 나의 회화는

언제나 진행형이길 바란다.

Q. 작품 창작의 주요 도구, 재료는?

A.

작가정보 자세히 보기 ▶